

에너지 공급망 붕괴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변화

'22.6.23(목),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 목 차 |||

I.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현황	1
II. 러-우 전쟁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3
III.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	6
IV. 해외건설 관련 시사점	12

I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현황

□ 코로나19와 공급망 붕괴 시작

- 2019년 말, 중국에서 최초 발견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를 격리하고 국경을 봉쇄하면서 노동력 부족, 생산 감소, 국제화물지연 등으로 인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정이 시작되었음
- 백신 보급과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기 시작하자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함
-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일반적인 대응 흐름이 “노동력 부족 → 국제화물지연 → 원자재 부족 → 생산 감소 → 공급부족 및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약 2년 반 동안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지속되고 있음
- 2022년 초,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중국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도시를 폐쇄하면서, 육상·해상·항공 교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물류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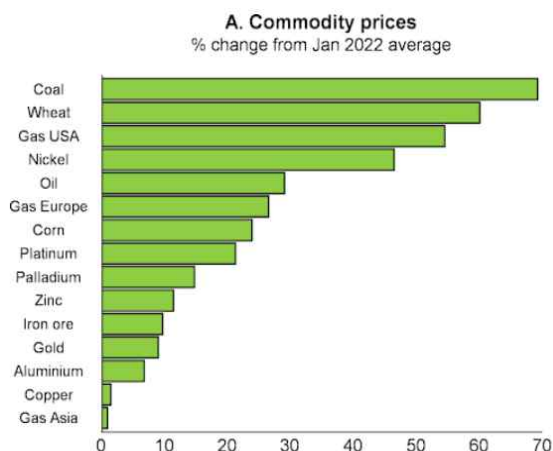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러-우 전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러-우 전쟁은 코로나19로 취약해진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등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자원부국인 양국의 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생산량 감소로 세계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과도한 의존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주요 농산품에 대한 전 세계의 의존 정도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음. 특히 EU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는데, EU 전체 수입량 중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석탄은 46.7%, 천연가스 41.1%, 석유 26.9%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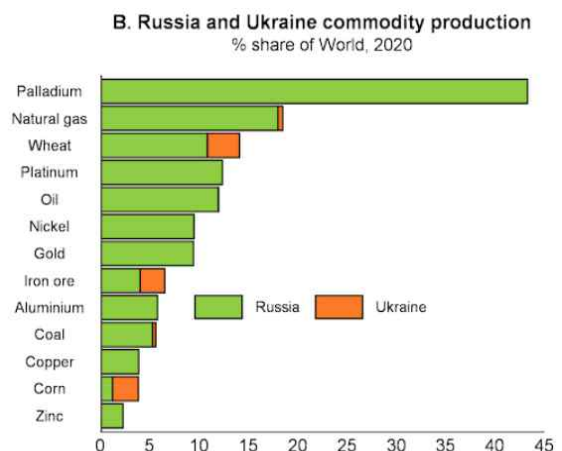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교역량의 25% 이상, 해바라기유 수출량의 60% 이상, 보리 수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주요 비료 수출국으로 전쟁으로 인해 비료 공급망에 훼손이 있을 경우 전 세계 곡물 수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함
- 결국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으며, 물가를 잡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조치가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 침체라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음
- IMF, World Bank, OECD 등 주요기관들은 세계 경제성장을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IMF 3.6%(4월), WB 2.9%(6월), OECD 3.0%(6월)로 하향 전망

<그림-1> 원자재 가격 급등 현황



<그림-2> 러시아우크라이나산 원자재 비중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June 2022)

II 러-우 전쟁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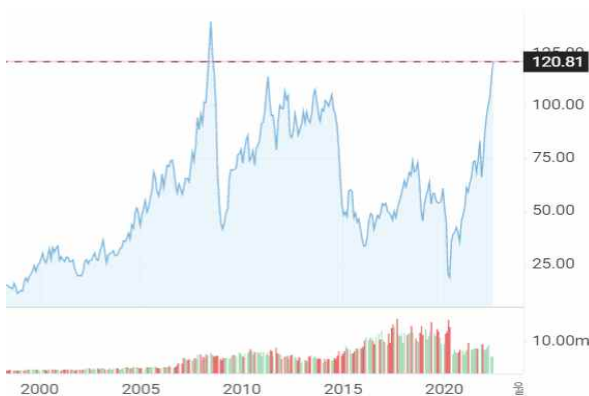
□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와 EU간 에너지 안보 이슈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국제 결제망(Swift Code) 퇴출, 러시아-유럽 연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노르드스트림2) 취소, 러시아 보유 외환 및 국외자산 동결, 첨단부품 공급차단, 러 선박 항공에 대한 영해 및 영공 출입 금지 등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러시아도 비우호적 국가 목록을 작성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구매에 대해 루블화 지급 요청, 일부 유럽 국가에 가스공급 중단, 천연가스 수출 통제 등 역제재에 나서면서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EU와 러시아 간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했고, EU의 탈러시아 정책이 강화되면서 COP26 이후 목표로 한 탈탄소 정책에도 영향이 생기는 등 국제 에너지 시장 전반에 걸친 변화의 조짐이 EU지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음
- EU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 감축을 위한 중·단기 종합대책으로 'REPowerEU'를 마련하여, 40% 수준에 달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분을 2022년 말까지 2/3 수준으로 감축하고, 2030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EU는 2022년 8월까지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 2023년에 러시아로부터 해상석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음. 다만, 이러한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조치는 대체에너지 공급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켜 에너지 시장을 교란하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성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치솟는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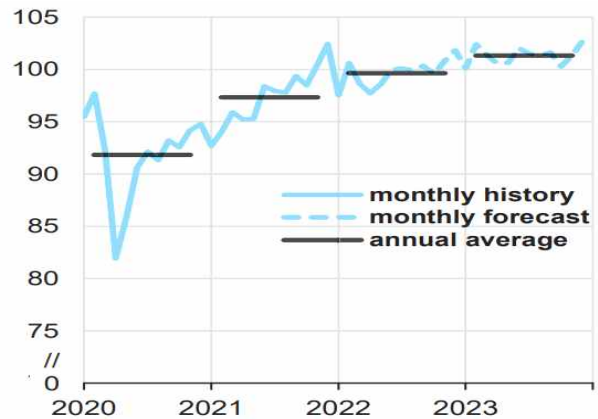
- (유가) 국제 석유 가격은 공급망이 붕괴되고 러-우 전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으로, '22.6.13 기준 WTI는 120.93달러 이고 브렌트유는 122.27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3> 국제 유가 추이(WTI 기준)



* 출처: Investing.com

<그림-4> 세계 원유 소비량(단위: 백만 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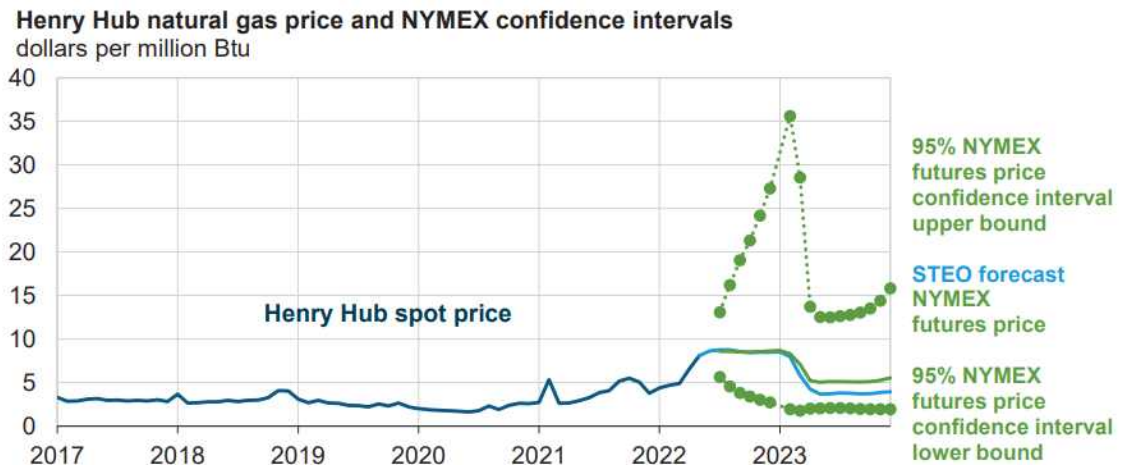
* 출처: EIA, STEO(June 2022)

- 6월초 OPEC+는 월간 생산 증가 목표를 43.2만 b/d에서 64.8만 b/d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유 석유 생산능력에 대한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음
- ESG 및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석유부분에 대한 많은 투자를 권장하지 않는 기조 속에 석유 탐사 투자 부족이 석유 생산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해왔음
- 현재 석유 생산량을 실제로 증산할 수 있는 산유국은 많지 않고 OPEC의 여유 석유 생산능력은 약 300만 b/d 로 추정(미 EIA)되고, 올해 말까지 100만 b/d 이하로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수요의 1% 미만에 해당할 정도로 미미한 수치임
- 주요 기관들은 산유국들의 생산·공급이 늘어나겠지만 러시아산 원유 공급 변화(유럽→아시아 등), 중국의 봉쇄정책 완화에 따른

수요회복 등 불확실성에 따라 국제유가가 금년 중 높은 수준을 지속하다가 완만하게 하락하여 올해 평균으로는 100~11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천연가스) 미 EIA의 Short-Term Energy Outlook(STEO, 2022.6)에 따르면, '22년 6월 2일, Henry Hub에서 인도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 대비 \$1.01/MMBtu 증가한 \$8.49/MMBtu로 거래되었고, 5월 천연가스 가격 평균은 \$8.16/MMBtu로 이는 '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5월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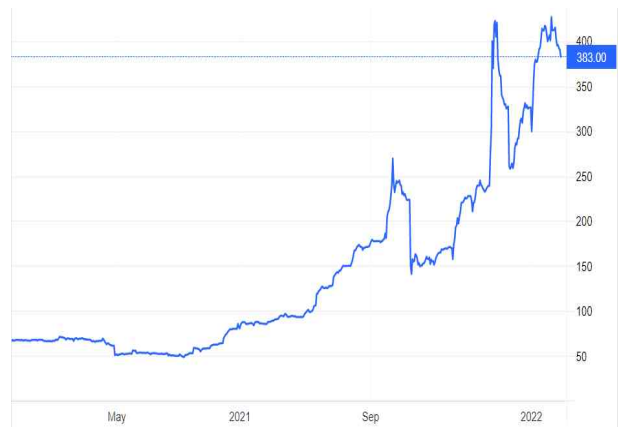
<그림-5> 천연가스(Henry Hub) 가격 추이



* 출처: EIA, STEO(June 2022)

- (석탄) 석탄 선물가격은 작년 4월 톤당 91달러에서 올해 4월 322달러로 폭등 중인데, 코로나19 이전에는 톤당 60~70달러 선에서 거래되었으나, 2021년 이후 가격이 급등하며 한때 최고 435달러를 기록했으며 6월 15일 기준 383달러에 거래되고 있음

<그림-6> 석탄 선물가격 추이



* 출처: Trading Economics

III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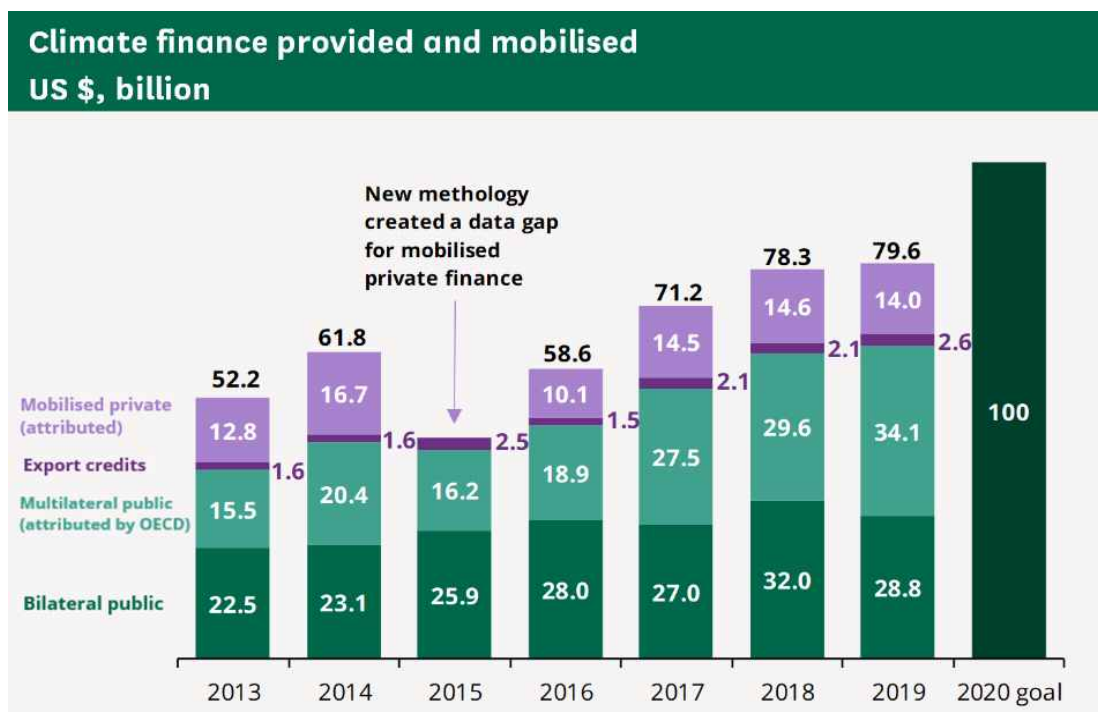
□ 글로벌 탄소감축 목표 설정 현황

-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5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과 '자발적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여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추진 중
 - *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UNFCCC)은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이며, 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부터 매년 1회 UNFCCC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개최하여 국가 자발적 감축 목표(NDC) 이행점검을 실시
- EU '유럽 그린딜' 추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재가입,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이 본격화 됨
 -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배출 1·2위 중국·러시아는 2060년까지,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 EU, 유럽 그린딜(A European Green Deal) 발표, RepowerEU 발표 등
 - 미국,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수립, 그린뉴딜, '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개최
 - 일본,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수립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 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함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합의한 파리협정

(2015년 COP21에서 체결)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에 주안점을 둠

- (적응재원) △ 선진국들의 적응재원 · 역량배양 · 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 MDB,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금융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등

<그림-7> 선진국의 기후재원 연간 조성 규모



* 출처: UK Parliament('21.11.03)

- (감축) △ 2030년까지 메탄 등 non-GHG(온실가스) 감축 검토 요구, △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등
-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금융기구들은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 기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석탄·오일·가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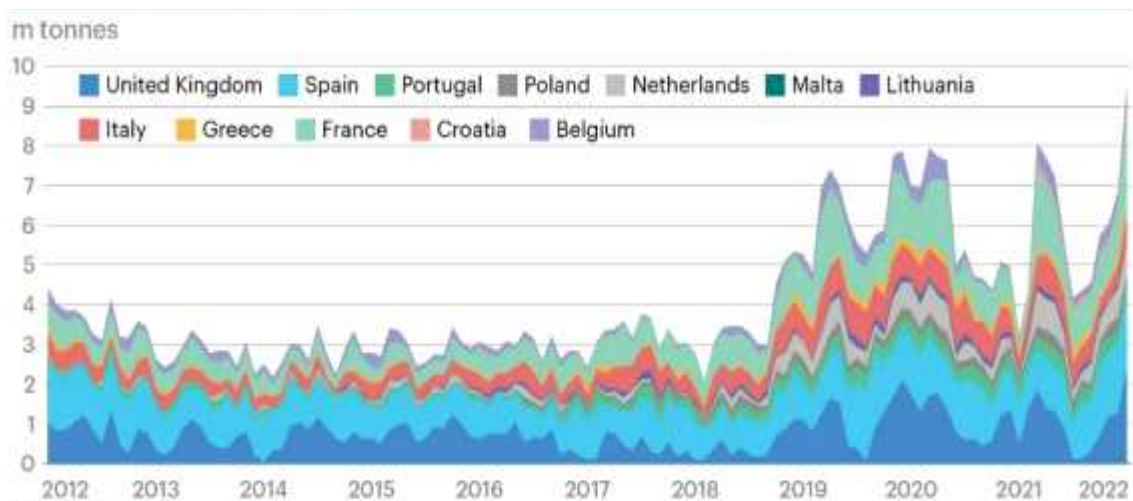
□ 에너지 정책의 변화

-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법제화 관련 주도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펼쳐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악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치며 탄소중립 이행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코로나19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전세계 에너지 수요는 확대되는 상황인데, 유럽의 2021년 풍력발전량 대폭 감소가 천연가스 의존도 심화로 이어지고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타국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가스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 천연가스의 대체재로 다시 석탄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 수요 및 가격도 급등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된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보다는 자국의 에너지 확보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음
-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은 에너지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내 석탄 등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거나 비러시아 석탄·화석연료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Shell社の '2022년 LNG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요 규모는 2040년까지 지난해 대비 90% 성장하여 연간 7억톤에 달할 전망이다
 - 독일, 영국 등 탄소중립에 앞장섰던 국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 기조에서 △ LNG 수입터미널 증설, △ 북해 유전·가스전 개발, △ 석탄발전 기간 연장 등 화석연료

발전 지원 기조로 정책 방향성 변화가 감지됨

-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지역의 풍력발전량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전력을 생산하면서 천연가스의 수입이 증가했고, 동시에 석탄과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가격이 급등했으며,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을 겪는 동안 유럽 내 천연가스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그림-8> 2012-2022 영국 및 EU LNG 수입 변화 (단위: Mt)



* 출처: ICIS, LNG global supply & demand outlook(2022.2)

- 현재 EU는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 중단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원을 차단하고 EU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REPowerEU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유럽으로 공급되지 못한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중국과 인도 등을 경유(혼합, 재가공 등)하여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음
- 이처럼 천연가스 공급망이 붕괴되고 가격이 급등하자 석탄의 생산 및 사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석탄발전량은 전년 대비 9% 상승했고, 2022년 석탄 소비는 전년 대비 2% 상승한 80억톤 이상이 될 것이며, 최소 2024년까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IEA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연간 에너지 수요 전망치’의 수정판을 7월경에 발표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작년 12월의 석탄 수요 전망치보다 높게 수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유럽의 2021년 석탄소비량은 전년 대비 12% 상승했고, 미국의 석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등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석탄의 소비가 증가했음

<표-1> 주요국 화석연료발전으로의 회귀 정책 사례

구분(국가)	내용
EU	- 이스라엘-이집트-EU, 카이로에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양해각서 체결 - 미국과 2030년까지 매년 500억㎥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계약 체결
독일	- (가스) LNG 해상 부유식 터미널 4곳 계획 및 건설 승인 절차 1/10수준 간소화 - (석탄) 예비전력원으로 가동하지 않던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재가동, 2030년까지 폐쇄계획 철회 및 천연가스의 대체재로서 2024년까지 사용
영국	- (석유) 영국 에너지 기업에게 세제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해 유전 개발 촉진 - (가스) 2025년 말 생산 시작을 예정으로 최대 규모 가스전 개발 재정 지원 및 보증
폴란드	- (가스) 리투아니아와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및 개통 단축 - (석탄) 지역의 광산 등 석탄 자산 인수하여 국가 에너지청으로 통합·지원 계획
오스트리아	- 가스공급 확보를 위해 2020년에 가동을 중단했던 석탄화력발전소 재가동
그리스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미루고 올해와 내년 석탄 생산량을 50% 증산할 계획
이탈리아	- (가스) 카타르의 세계 최대 LNG 프로젝트 ‘노스필드 이스트(NFE)’ 개발 사업 참여 - (석탄) 2025년까지 단계적 퇴출 철회 및 기폐쇄 석탄발전소 재개 고려
네덜란드	- (가스) 환경상 이유(지진)로 중단되었던 호로닝언 가스전 독일과 공동개발 고려 - (석탄) 석탄화력발전 제한을 2024년까지 해제
미국	- 2,060억㎥ 규모 천연가스 설비 건설 계획을 연방정부가 승인함
중국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2022년 석탄생산 및 공급을 전년 대비 7% 확대할 계획
호주	- 천연가스 발전소를 석탄화력발전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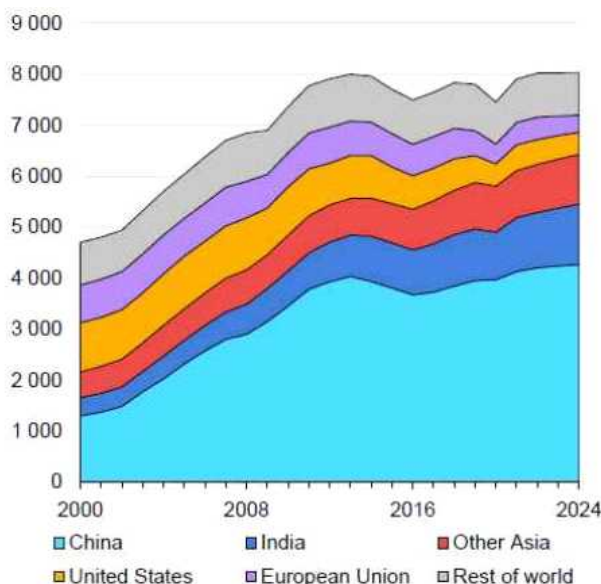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로이터 등 각종 언론사

- 한편, 미국은 유가 수준을 낮추기 위해 환경정책을 일부 수정하면서 △세일오일 증산, △연방정부 차원의 석탄개발 및 판매, △

LNG 수출 터미널 대규모 확대 등 개발자금을 적극적으로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음

- 아시아의 경우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가 대규모 착공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설비용량(33GW)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신규용량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기부양 및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올해 석탄의 생산과 공급을 작년 대비 7% 늘릴 계획임
- 중국은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53%를 차지하고, 주로 발전부문에서 석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까지 석탄 수요가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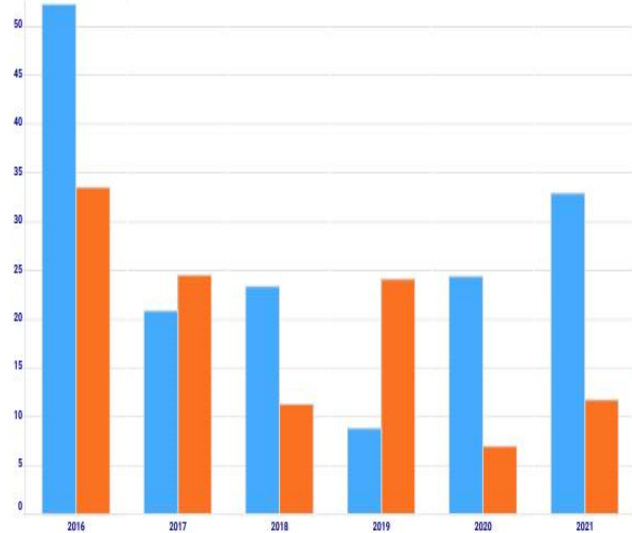
<그림-9> 석탄수요 전망



* 출처: IEA, <Coal 2021: Analysis and forecast to 2024>

<그림-10> 전 세계 연간 신규 석탄발전소 착공 현황(단위 : GW)

중국 = 파란색,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 주황색



* 출처: 글로벌에너지모니터 등, 석탄의 경제대전환(2022.03)

- 러시아는 인도,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석탄 생산량을 2035년까지 6.68억톤으로 확대할 계획임

IV 해외건설 관련 시사점

□ 에너지 안보 강화 위한 전통에너지 플랜트 사업의 재추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잠시 중단 또는 유보하고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독일, 중국, 에스토니아 등 세계 각국에서 LNG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타 에너지 자원 대비 저장과 수송이 어려운 천연가스의 러시아산에 대한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LNG 액화 및 수출·수입 터미널, 수송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함
 - 에너지 안보를 위해 천연가스 재고량을 확보해야하는 국가들은 전력생산을 위해 석탄 사용을 재개하고 있어,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를 보류하고 건설 및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관련 플랜트 증설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속에서 SK E&S가 참여하고 있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3.3억 달러 규모 금융지원이 최종 승인됨
- 다만, 천연가스와 석탄 활용은 에너지 부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일시적으로 현상으로,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의 기조와 ESG 정책 하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은 지속될 것임. 천연가스

와 석탄의 장기적인 수요가 불확실하여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투자 확보에 어려움 상존

□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등 친환경 플랜트 건설 확대

-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석탄과 같은 저비용에너지에 대한 수요 및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동안 높은 생산비용으로 추진이 주춤했던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 되고 있음
- EU는 2030년까지 최소 40GW 규모의 수전해설비를 구축해 최대 1만톤의 수소를 공급할 계획으로 EU 집행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 시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동시간대에 부가적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그린수소 생산 관련 법 초안을 마련함
- 그린수소 사업 추진의 일례로, 독일은 국제 그린수소 시장 확장을 위해 H2 Global 프로젝트에 9억 유로를 지원했고, 함부르크 주정부는 그린수소 수입 터미널 인프라 구축, 덴마크와 HyPerLink III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추진, 철로를 통한 그린수소 수입 가능성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그린수소 수입전략을 발표하며 주요 그린수소 생산국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함
- 최근 팀 코리아(삼성물산, 한전, 서부발전)가 UAE 키자드 산업단지 내 연간 20만톤 규모의 그린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 UAE 페트롤린케미사와 함께 그린수소·암모니아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최초로 해외 그린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최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수주한 네옴시티 철도터널 공사를 발주한 사우디는 스마트 도시 네옴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우리기업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음

- 아직 미개척 분야인 세계 그린수소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표본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에 일조

□ 원자력 발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진출

- COP26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기조가 확산되고,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원자력발전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 16% 수준에서 최소 2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체코, 폴란드 등 유럽 내 주요국에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원자력 발전은 과도한 건설비용과 긴 건설기간이 단점으로 당장의 에너지 이슈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해결할 대안으로 급부상 중
- 세계 각국이 비용과 기간의 단점을 상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도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과 원전동맹을 선언하며 협력하는 등 진출 기회를 모색
-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원전 수주 경쟁자 수를 줄이고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 보다 개선된 원전수출 전략 수립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계의 해외진출 확장을 모색해야할 것임